

국내기업, 9,200억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 환경부 장관, 해수담수화·스마트 물관리 분야에 발로 뛰는 수출외교 지속 다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에스(GS)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공사(EWEC)에서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계약을 8월 9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계약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민 방문과 양국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1월 15일)을 계기로 맺어진 가시적인 성과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슈웨이하트 지역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지역에 하루 약 100만 명이 쓸 수 있는 32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설비 공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설치, 시운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EPC방식*)하며, 올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 이후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 설계-구매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그간 환경부와 아랍에미리트는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매년 수자원공동위원회(JOC)를 개최하여 중동지역에 맞는 해수담수화 기술, 스마트 상수도 및 누수율 저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6월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과 아랍에미리트의 물 분야 사업계획을 주제로 수자원 정책·기술 교류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15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르네 매티스(Rene Matthies)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EWEC) 최고재무담당자를, 6월 13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에서 아메드 모하메드 알카비(Ahmed Mohamed Alkaab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수출외교를 펼쳐 왔다.

환경부는 이번 수주계약 이외에도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및 상하수도 등 물분야 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해수담수화, 누수율 저감 등 스마트(AI) 물관리 분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갖는 강점 분야”라면서, “이번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시설 수출을 시작으로 물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수출외교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한기설 (044-201-7645)



□ 사업개요

- (사 업 명) UAE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SWRO**) 프로젝트
 - * 슈웨이하트(Shuweihat) :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지역
 - ** 역삼투막(SeaWater Reverse Osmosis)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 (사업내용) 해수를 담수로 바꿔 해당지역 생활용수 공급 (31.8만m³/일)
- (발 주 처) UAE 수전력공사(EWEC, Emirates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 (사업기간) 약 33년 (공사 3년 + 운영 30년)
- (사업형태) BOO 방식 (Build(건설) - Own(소유) - Operate(30년 운전))
- (총사업비) 9,200억원 (728백만불, 시공 337백만불 + 운영 391백만불)

□ 사업대상지 위치도

